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6. 26.(수) 14:00
(지 면) 2024. 6. 27.(목) 조간

지방시대 전략 수립을 위해 시·군·구 부단체장과 머리를 맞댄다

- 자치인재원, 전국 시·군·구 부단체장 10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(6.26.)
- 지방시대 추진 방향,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,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원칙 등 공유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 지방자치인재개발원(이하 ‘자치인재원’)은 6월 26일(수) 14시,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‘시·군·구 부단체장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워크숍은 국가의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현황과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-지방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이날 행사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김민재 차관보, 강진원 전라남도 강진 군수, 전국 시·군·구 부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.
- 이날 워크숍은 지방시대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행안부 관계자 특강에 이어, 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및 지역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.
- 먼저,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<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추진방향>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지방시대 추진 필요성, 정부의 주요정책 등을 소개했다.
-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체계 개편 및 사업 범위 확대,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 등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.

- 다음으로, 강진원 전라남도 강진 군수가 <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>로 강진군의 농촌 체험·민박 프로그램 ‘푸소(FUSO, Feeling-Up, Stress-Off)’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병영 불고기를 활용한 ‘불금불파(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) 축제’ 등을 소개했다.
- ‘푸소’는 2015년 학생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, 현재는 일반인 푸소, 강진 일주일 살기, 강진푸소 시티투어, 공무원 청렴 푸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.
- ‘불금불파’ 축제는 4월부터 10월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병영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며, 지난해 병영면 인구의 약 9배인 1만 3천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
- 한편, 이날 워크숍에는 임홍택 작가*를 초빙해 <2000년대생 공무원이 온다>를 주제로 엠지(MZ)세대 틈을 넘어 시대에 맞는 소통 원칙을 확립하는 방법을 공유하고, 최근 이슈가 된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과 관련해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.
- * 저서 : 90년생이 온다, 2000년생이 온다 등
- 고기동 차관은 “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- “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소통해, 정부의 국정철학이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	책임자	과 장	송준호 (063-907-5041)
		담당자	사무관	손성일 (063-907-5053)